

‘맛집 투어’ 지고

MZ들의 달라진 ‘광주 여행’ 풍속도

자연·먹거리 위주 여행서 비엔날레·ACC 등 ‘멋집 투어’ 윤 탄핵 집회 참여하기 위해 주말 5·18민주광장 찾기도 “광주 여행하며 희망·용기 얻어” 브이로그·숏폼 sns 공유

광주를 찾아오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0년대생)들의 여행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

광주는 과거 자연과 먹거리를 즐기던 여행지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문화와 예술,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품은 여행지로 젊은 세대에겐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MZ세대가 SNS를 통해 브이로그(VLOG·일상을 동영상으로 기록한 콘텐츠)와 여행 코스를 공유하는 문화가 떠오르면서 광주의 문화·예술·역사 등 콘텐츠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계엄 정국’을 경험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계엄의 아픔을 겪은 광주를 여행하며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구독자 9000여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는 ‘혼자 광주여행,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제목의 여행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인 유튜버 A씨는 광주 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독립서점과 소품샵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광주를 ‘느낀’ 감성의 도시

라고 표현했다. ‘느낀’은 ‘느낌 좋다’를 줄여서 표현한 MZ세대의 신조어다.

단순 여행을 넘어서 광주의 역사와 정치적 의미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영상에서 광주의 한 독립서점에 들러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작 ‘소년이 온다’를 꼭 광주에서 구매하고 싶었다”는 말을 남겼다.

또 다른 여행유튜버인 B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당시 광주를 여행하는 영상을 올렸다. 5·18기록관과 전일빌딩을 둘러본 뒤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 광주시민총회대회에 참여하는 식이었다.

B씨는 영상에서 “민주화의 고장인 광주의 집회에서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들을 수 있어 기뻐했다”며 “광주를 보며 내란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 처음 방문하는 도시였는데도 역사의 흔적을 되짚으며 연대와 감사를 느꼈다”고 말했다.

‘계엄 정국’을 겪으며 광주의 역사를 떠올리는 MZ세대도 우후죽순 늘고 있다. 한 여행유튜버는 전일빌딩에 전시된 윤상원 열사의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는 글귀를 소개하며 “딱 지금 필요한 말이다”고 강조했다.

SNS에는 5·18기념공원의 지하 추모송화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이들의 피로 지킨 민주주의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등 광주에서 역사를 되새기는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유튜버들뿐 아니라 광주를 찾아온 MZ세대 여행객들은 5·18 사적지 등을 ‘필수 여행 코스’로 삼고 있다. 동구 급남로에서 전일빌딩, 5·18기록관, 서구 쌍촌동 5·18기념공원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역사여행’을 하고자 광주를 찾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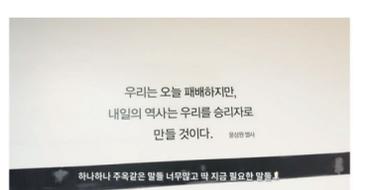
실제로 12·3 비상계엄 이후 전일빌딩 이용객 수는 급증하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전일빌딩을 이용객은 2024년 12월 2만8878명, 지난 1월 2만1460명으로 두 달 간 5만338명에 달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이용객 수 2만9859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역사 현장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토요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SNS에 ‘인증 사진’을 꾸준히 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1월 광주를 여행한 정가연(29)씨는 “광주는 가는 곳마다 5·18사적지는 물론이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등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의 흔적이 보였다”며 “이런 정 때문에 내란사태가 지속돼

역사·예술여행 뜬다

역사 기념 테마로 꾸민 광주에 온다면 멋진 하지만 한 번은 봐보는 걸 추천드리는 곳 부끄럽지만 좀 많이 올랐다(김민서)



광주를 방문한 MZ여행객들이 전일빌딩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고 SNS에 올린 여행 후기 게시물. (SNS 캡처)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기 위해 광주를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주에 방문한 외국인 방문자를 분석한 결과 2021년 5623만1056명에서 2022년 6361만5947명, 2023년 6625만7320명, 2024년 6635만 5821명

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의 내비게이션 검색 통계(2024년 기준)에는 음식(57%)뿐 아니라 문화관광(13.4%)과 쇼핑(11.6%)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것으로 집계돼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남구·광산구, 시민 교통안전 신경 안쓰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집행률 남구 0%·광산구 18.8% 예산 37.5%·50%씩 삭감...남구 “사업 대상 선정이 늦어진 때문”

광주시 남구와 광산구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광주시로부터 예산 삭감 조치를 당했다.

남구와 광산구는 해당 예산을 86% 이상 집행해 상대적으로 남구와 광산구가 시민 교통안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2025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자치구 예산 재배정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구가 시선유도봉,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광주시 예산이다.

광주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삭감했으며, 이에 따라 자치구에 재배정되는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줄었다.

문제는 올해 1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낮은 남구와 광산구 지원 예산이 큰폭으로 줄었다는 데 있다.

남구는 지난해 4000만원에서 올해 2500만원으

로 37.5%가 삭감됐고, 광산구는 지난해 1억 300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동구·북구는 1000만원이 삭감되고 서구는 그대로 유지된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삭감이 이뤄진 것이다.

광주시는 “예산 재배정은 도로연장(길이) 30점, 집행률 35점, 사업계획 15점으로 평가해 점수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며 “남구와 광산구가 담당자 변경과 사업 추진 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률이 저조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평가가 이뤄진 지난 1월 기준 남구는 집행률 0%, 광산구는 18.8%로 집계됐다. 동구 99.3%, 서구 85.9%, 북구 95.3%와 비교해 삭감이 컸은 집행률이다.

남구는 “낮은 시선유도봉 교체 등은 구비 8000여

만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며 “시비를 활용한 정비 역시 사업 대상 선정이 늦어져 예산 집행이 이뤄졌을 뿐 0%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비로는 비용 부담이 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 의견 반영 및 설치 장소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다보니 지난 10월에서야 봉선동 문성고 앞 도로에 발광형 속도계 표지판 설치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1월 설치를 완료해 이달 시비 2758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광산구 역시 “2월 집행 예정인 4409만원을 포함하면 집행률은 52.6%로 올라간다”며 “이밖에 1억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흑석사거리 교차로 일대 안전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구·광산구 관계자들은 “올해는 노후·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 등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 건설노조 “체불임금 146억 특별감독” 촉구

광주 지역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체불임금 146억여원(추산)에 대해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노조)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건설 현장에 대한 전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기준 전국 임금체불 금액은 2조원이고 이중 건설업 체불 금액은 4780억에 달한다”며 “광주지역 건설현장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단체협약 미적용에 따른 임금체

불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1000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법정공휴일 유급 수당과 연차수당, 토요일 연장노동수당, 식비 등 14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속되는 임금 체불에 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 체불임금만이라도 해결해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으나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대장동 돈 수수’ 박영수 징역 7년 법정구속... ‘50억 무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형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PI(자기자본투자) 업무, 컨소시엄 구성 관련 등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졸용 여신외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경철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